

우리의 '흔'으로 찍은 경주의 얼굴

《경주에 가 보았어요》 펴낸
임영균씨

같은 사물이라도 특정 각도와 시간대에 따라 피사체가 전혀 달라 보이는 사진이 있다. 나지막한 숨결이나 감추고 있던 표정이 드러나는 것이다. 신라의 고도, 경주를 다양한 앵글로 들여다본 사진집 《경주에 가 보았어요》(눈빛)는 늘 똑같은 사진만 보아 왔던 경주의 색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해질 무렵 다보탑의 단아한 실루엣과 낮과 밤의 표정이 다른 천마총, 안압지의 숨죽인 물소리와 다보탑 사이에서 보이는 석가탑의 절제된 우아함이 아름답다. 거석과도 같은 황룡사지의 탑신은 박모(薄幕)의 어스름이 어울린다.

이 책은 임영균 교수(40·중앙대학교 사진학과)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다큐멘터리 사진학회와 기획다큐멘터리 '경주 96'의 작품집이다. 대학원 수업중 "한국적 정서에 바탕을 둔 다큐멘터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던 행사의 결과물. 지난 5월 18일 향토학자 윤경렬씨와 사진작가 강운구씨의 강연을 갖고 하루 동안 경주를 구역별로 나누어 촬영한 작품을 골라 책으로 엮었다.

"우리 현대문화는 너무나 서구지향적입니다. 사진도 이론과 실기뿐 아니라 찍는 대상까지 온통 서구적인 문물이나 한국적인 정서의 표출이 아쉬웠습니다." 임영균교수는 오래 전부터 다큐멘터리 사진과 한국적인 문화에 몰두해 있는 작가다. 《아르 비방 총서》(시공사)에 들어 있는 작품집의 세계도 그렇거니와 아더 로드스타인의 《다큐멘터리 사진론》(눈빛)을 번역한 전례를 보아도 그렇다.

"외국문물을 찍더라도 우리 시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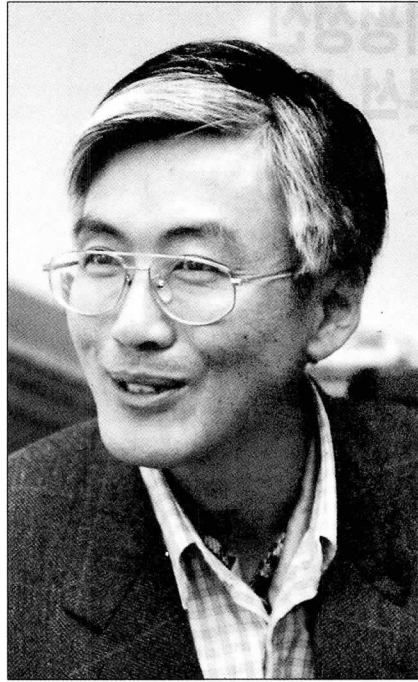
찍어야지요. 물론 사진에도 문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스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체적인 흔을 가지고 찍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진이 서구의 것이라지만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사진이 발달했다는 일본의 사진들은 제각각 다릅니다. 그들의 정서와 문화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진의 기능은 기록과 표현이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사실을 직시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재인식의 계기가 되며 기록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간에 계몽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외국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들이 공황이나 전쟁, 기아 등 역사의 현장에서 카메라를 메고 뛰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리의 현실을 조명하여 역사와 현실을 다시 되돌아보는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임영균 교수는 학회차원에서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 순으로 유적을 찾아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는 행사를 매년 갖고 작품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는 올 4월쯤 '서울'을 주제로 도시와 사람들을 찍은 작품전시회도 계획 중이다. 귀뽀한다.

— 마정미 기자



방송기자의 유럽도시 읽기

《비엔나에는 비엔나커피가 없더라》 펴낸
신창섭씨

다양한 색조와 열려 있는 목소리를 지닌 유럽의 도시들을 '책' '기억' '문화' 등을 매개로 읽어내면서 신창섭씨는 그 꿈을 이루었다.

지난해 4월에 귀국, 편집부로 발령을 받아 비교적 여유가 많아진 신창섭씨에게 책은 자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한 방법이다. 시간이 나는 대로 책방에 들러 보고 싶은 책들을 사놓아야 마음이 편해지는데, 책 사는데만 한달에 기십만원씩 든다고.

《베를린 장벽》《분단비용보다 통일비용이 더 싸다》 등 비교적 전문적이긴 하지만 이미 서너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신창섭씨는 책을 집필하는 일에도 남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책을 쓰는 일은 기자로서의 의무이자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아가 기자로서 누리는 특권에 대한 보답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근에는 특히 운명적인 인물이나 시대를 정리하는 일에 관심이 쏠리는데 이미 원고를 완성한 《아테나워 전기》 외에 국내 정치지도자들의 전기 집필도 구상 중이다.

— 박남정 기자

《비엔나에는 비엔나커피가 없더라》(최정)는 신창섭(39, MBC)기자의 유럽여행기다.

"결혼해서 1주일만에 독일 특파원으로 발령을 받아 3년 2개월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북한 핵문제와 보스니아 전쟁이라는 커다란 사건이 세상의 관심을 끌던 때라 시도때도 없이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출장명령 때문에 늘 잘꾸러진 여행가방을 방 한켠에 두고 살아야 했지만 덕분에 신창섭씨는 유럽 곳곳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직업근성인지 어디 가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나면 꼭 기록으로 남기고 정리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이 책은 그의 이러한 습관의 산물이다. 도시의 풍경을 읽어내는 풍부한 감성이나 그곳의 역사와 문화의 단층들을 헤집는 예리한 시선이 신선하고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오이로파' '센트랄' 등 전통을 자랑하는 빈의 카페들, 유럽의 책마을인 벨기에의 레뒤마 등 문화의 품격이 느껴지는 유럽 도시의 풍경들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마키아벨리의 고향인 피렌체에서는 시오노 나나미와 대학시절 《군주론》을 설명하던 교수님을 떠올린다. 문학작품을 관광자원으로 탁월하게 활용한 더블린 거리, 카잔차키스의 《회랍인 조르바》로 상상 속에 퍼덕이던 그리스의 크레타섬 등 그의 발끝에서 되살아나는 도시의 풍경은 읽는이로 하여금 당장 떠나고 싶은 욕망을 부추긴다.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길에서 행복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철학하는 조각가의 독특한 울림

《그림없는 미술관》 펴낸 안규철씨

디자인의 산업적 측면은 간과할 수 없지만 미술을 팬시화하는 야만적인 폭거에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한국미술의 세계화 문제도 한국적 특수성보다는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구현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구상주의 회화의 전개과정을 부연설명하면서 우리와의 친연성을 자연스럽게 부각시킨다.

안규철씨는 '손으로 생각하는 조각가' 혹은 '철학하는 조각가'로 통한다. 그의 사색인으로서의 면모는 조각뿐만 아니라 글에도 잘 드러난다. 단아한 문장 속에서 구도자의 '변뇌' 같은 것이 느껴진다.

조각과 글에 능란한 안규철씨의 '양수검정'은 때로 타매와 질시의 대상이 된다. '조각가는 작품으로 말해야지 글쓰기가 다 뭐냐'는 지적구를 듣기도 한다. 《그림없는 미술관》의 출간을 통해 글쓰기는 한 매듭을 짓기로 했다. 다만, 번역을 통한 글쓰기는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요셉 바이즈를 비롯한 몇몇 독일어권 미술가의 전기물을 새 봄이 오기 전에 펴낼 작정이다.

— 최성일 기자

“새해에는 좀 쉬어야겠다”는 것이 계획일 정도로 안규철씨(42, 조각가)는 지난 한해를 정신없이 보냈다. 공동전시회 참가와 개인전 개최, 대학 출강, 지난해 12월 8일 제막식을 가진 단재 신채호 선생 동상제작 등에 매달리느라 쉴 틈이 없었다.

귀국 개인전 '사물들의 사이' 개최에 앞서 상자한 《그림없는 미술관》(열화당)도 지난해 안규철씨를 분주하게 만든 '품목' 가운데 하나.

8년 동안의 유학체험이 고스란히 드러난 이 책은 드물게 우리의 손으로 씌어진 현대미술 입문서다. 열개의 기획전과 다섯개의 개인전에 대한 현장보고를 통해 현대미술의 세계로 독자들을 이끈다. 미술관에 그림이 없다는 역설이 시사하듯이 현대미술은 난해하다.

“미술사적 맥락에 의한 현대미술의 이해는 양식적인 변화에 관한 많은 공부를 요구합니다. 틀에 박힌 미술교육을 통해 형성된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직관으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안규철씨가 보는 현대미술의 앞날은 몹시 비관적이다. 이러한 비관적인 인식은 미술의 사회성에 대한 강조와 맞물려 독특한 울림을 불러온다.

“미술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면 무기력함을 절감합니다. 부딪히고, 깨지며, 좌절을 딛고 일어나 의사소통의 그릇이라는 미술의 참뜻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미술에 들춰워진 시각적 쾌락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반 고흐 일백주기 추모전에서 티셔츠나 그림엽서에 고흐의 그림을 마구 찍어파는 세태에 개탄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비판적 영화읽기의 길잡이

《여간내기의 영화교실》 펴낸 김동훈씨

우파의 시각을 찾아내고 《텔마와 루이스》에서 비겁한 안티페미니즘을 비로소 발견한다. 김동훈씨는 이제까지 나온 영화 이론서들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수업시간에 이루어진 토론 내용을 고스란히 책에 담았다.

“동네 비디오 대여점에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를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이 책이 알듯 모를 듯한 말로 화려하게 치장한 전문서와 줄거리 요약 정도로 그치는 가벼운 읽을거리 사이에서 실질적인 영화감상 길잡이 역할을 하기 바랐기 때문이다. 사실 김동훈씨는 90년대 새로운 문화의 상징이 된 영화와는 거리가 먼 전문학 연구자로 전형적인 80년대 리얼리스트다. 하지만 그는 영화 속에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의 세계에 기대를 건다.

“집필기간 동안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이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느냐, 장르구분이 잘못됐다는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간섭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문화의 맥락에서 영화를 보는 시각이 정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주 기자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의 ‘여간내기’를 내세워 보통사람들의 비판적인 영화보기를 유도한 책이 나왔다. 전문가도 아닌 김동훈씨(38, 강사)가 이런 책을 펴낸 이유는 한 가지다.

“서구이론으로 듣도 보도 못한 예술영화를 논하는 영화평론가들도 수상했고, 그렇다고 두 시간씩 영화를 보고도 재미있다, 없다로만 평가하는 가벼움도 경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 요즘 아이들의 경박함을 탓하지만 김동훈씨는 영화 속에 과거에 책이 주었던 것 못지 않은 가치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간파한다. 강의를 맡은 대학에서 수업 방법으로 ‘영화보고 토론하기’를 도입한 김동훈씨는 영화를 통해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넓어질 수 있음을 알았다.

“처음엔 잡지나 다른 책에서 평론가들의 말을 베껴오더니 차츰 자신의 시각을 정립해 나가더군요”

김동훈씨의 문제제기식 토론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영화읽기가 시작된 것이다. 《시네마 천국》에서 알프레도가 토토와 엘레나의 결합을 막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편제》에서 유봉은 왜 송화의 눈을 멀게 했으며 송화는 이를 알면서도 왜 모른 채 받아들였을까, 또한 송화와 동호 남매는 그토록 바라던 상봉에서 서로 모른 척하고 다시 헤어졌을까 등의 문제를 걸어 놓고 각기 다른 생각을 나누다 보면 영화를 보는 입체적인 시각이 생긴다.

학생들은 이같은 문제제기식 토론을 통해 《포레스트 검프》에서 미국 현대사를 보는

